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 살아가다2 ‘승기천을 기억하다’				
구술자명	박병상	면담자	남희현		
면담장소	학산지속발전협의회	면담지원	-		
면담 일시	2019년 10월 18일(금) 오후6시	회차	1	시간	93분 28초
자료번호	MichuholCA-07-00001154				
구술 개요	주안사거리 일대는 논, 밭이었고, 물길에서 개구리를 잡기도 함. 선인재단 가는 길에도 물길이 있었음. 시민회관의 물웅덩이에서 잠자리 등을 잡고 놀았던 기억. 생태에 대한 글을 쓰게 된 것은 과거 흙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임.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 주안역 일대가 매립되며 집들이 많이 생김. 현재 주안 일대 재개발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이 필요함. 우리의 삶과 정서가 뿌리내릴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야 함.				
주요 색인어	승기천, 주안사거리, 주안감리교회, 스케이트, 시민회관, 개구리, 제물포, 선인재단, 잠자리, 붕어, 미꾸라지, 생태, 흙, 주안역, 매립, 염전, 공단, 재개발, 아파트, 주택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주안사거리에서의 어린 시절			00:00:47~ 00:15:38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첫 기억이 주안사거리 일대에 대한 것임. - 60년대 초, 주안감리교회(국제성서박물관) 옆으로는 논이 있었고 길 건너로는 밭이 있었음. - 승기천을 이용한 논외 물웅덩이에서 겨울철 스케이트를 탐. - 시민회관 쪽에는 논밭 사이로 작은 물길이 있었고, 아이들이 개구리잡이를 하기도 함. - 주안사거리 쪽은 논, 밭이 섞여 있고 개울이 있어 물이 늘 흐름. - 승기천은 아닐 수도 있지만 농협에서 주안으로 가는 쪽에도 물이 있었음. - 아이들이 밭 가장자리의 웅덩이에 함정을 파는 장난을 치기도 함.					
2. 제물포 일대의 물길			00:19:23~ 00:21:46		
- 외갓집이 있던 제물포 선인재단 쪽으로 가는 길에도 물길이 있었음. - 외삼촌 댁 가는 길이 제물포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던 길로, 물길이 같이 있었음. - 물길의 폭은 2~3m 정도로 아이들 종아리 정도까지 오는 깊이.					
3. 시민회관 일대의 물길에서 놀았던 기억			00:22:41~ 00:29:16		
- 시민회관 자리의 물웅덩이에서 물잠자리를 잡거나 노래를 불렀던 기억.					

- 얇은 철사와 대나무로 채를 만들어 왕잠자리를 잡았던 기억. - 물웅덩이에서 붕어, 미꾸라지 등을 잡아 집에 가져가기도 함.		
4. 생태와 관련된 글을 쓰게 된 계기		
- 지금까지 생태적인 글을 쓰게 된 것은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 - 성공을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별로 크지 않았음. - 흙에서 놀았던 기억, 흙에서 노는 다른 사람들을 지켜봤던 기억이 지금의 글에도 녹아있음.	00:29:17~ 00:37:54	
5. 주안역 일대의 매립		
-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 염전이 메워지며, 공단의 노동자들을 수용할 10평도 안 되는 주택들이 빼곡이 들어섬. - 겨울이면 놀던 논, 밭을 메워버림. - 중학교 이후부터는 동네에서 잘 놀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없음. 매립이 이루어지며 집들이 지어지기 시작함. - 아버지가 60세에 약국을 그만둔 이후부터 아파트를 전전함. - 아직도 주안에 아련한 마음이 있음.	00:37:55~ 00:51:13	
6. 주안 일대의 재개발계획		
- 주안 일대에서 재개발계획이 세워지고 있으나, 계획에 계통이 없고 엉망임. - 앞으로 3~40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더 삭막해질 것.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그래도 주변 사람들과 서로 알고 지냄. - 과거에 논, 물길 등이 있었던 것을 아무도 모르는 곳이 될 것. -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도를 바탕으로 공원, 바람골, 빗물을 이용한 수영장 등을 계획해야 함.	00:52:40~ 00:57:03	
7. 우리의 삶이 뿌리내릴 수 있는 동네		
- 생태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연구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두고두고 아쉬울 것. - 다른 지역의 사례를 흉내 내기보다 우리 지역의 맥락을 잘 알아야 함. - 사람들이 과정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 지역에 살고 싶게 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아파트, GTX 등을 만들수록 지역의 정서가 남아 있지 않게 될 것. - 우리의 삶이 뿌리내릴 수 있고 기억에 정착될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야 함.	00:57:04~ 01:27:36	